

B-2 Strip 치은자가이식술시 이식편의 수축율에 관한 임상적 연구

정해수*, 정진형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I. 본론

경험적으로 낮은 전정은 치은 건강과 효과적인 구강위생관리를 방해한다고 여겨졌다. 부착치은의 부족은 구강전정의 깊이가 얇은 경우에 나타나는 경향이 높으므로 부착치은의 길이와 구강전정의 깊이를 동시에 증가시키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에 부착치은의 증대를 위해 소개되어 이용되고 있는 strip치은자가이식술을 임상적으로 적용하고 이식편의 수축율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II. 본론

단국 대학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 중 하악 소구치 부위에 부착치은의 증대가 요구되는 성인 27명의 환자에서 37부위(57개의 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37부위 중 25부위(43개의 치아)는 Strip 치은자가이식술을 시행하였고 12부위(14개의 치아)는 유리치은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수여부의 연장범위, 유리치은연을 포함한 부착치은의 양, 이식편의 폭, 임상적 치은열구의 깊이를 초진시와 시술시 그리고 시술후 2, 12, 24주에 각각 측정하였다. 치유과정에 따른 각각의 변화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III. 결론

1. Strip치은자가이식술과 유리치은자가이식이 시행된 모든 부위에서 각화치은과 부착치은이 모두 유의하게 증대하였다.
2. Strip치은자가이식술과 유리치은자가이식술이 시행된 모든 부위에서 임상 치은구 깊이는 시술전과 시술후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 Strip치은자가이식술과 유리치은자가이식술이 시행된 모든 부위에서 이식편의 수축은 시술 3개월 이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Strip치은자가이식이 시행된 부위와 유리치은자가이식이 시행된 부위에서 이식편의 수직수축율은 시술 6개월 후에 각각 28%와 29%의 결과를 얻었으며 두 술식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